

지역 **메아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성료

완주군립 삼례도서관에서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17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선정된 삼례도서관은 늘푸른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참가학생들은 그림책 스토리텔링, 도서관 견학, 영화관람, 책놀이 등 독서교육과 올바른 독서습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체험했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졌다.

한편 삼례도서관은 'Merry 삼례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특강을 진행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심사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말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심사를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보건소에서 7일 실시 했다.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 9일간 공모 접수절차에 의해 진행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사는 위원장인 김제시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에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교수 및 시의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7인으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래병원(원장권혁일)은 수탁기간 동안 김제시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정신건강상담, 24시간 위기대응반 운영, 자살률 감축을 위한 김제시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열의와 협력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떡국떡 전달행사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에서 지난 8일 적십자봉사회(회장 최석분) 주관으로 떡국떡 전달행사를 가졌다.

이번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떡국떡을 직접방문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백구면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는 쌀 200kg을 기부해 만든 떡국떡을 40개 마을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국가예산 5천억대 확보

김제시, 육교 재가설·새만금 수목원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 탄력

김제시(이후천 시장권한대행)는 내년도 국가예산 5,500억원을 확보하여 4년 연속 국가예산 5천억원대를 달성함으로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조치로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거둔 값진 성과로 김제시는 그동안 진북도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왔다.

가재부 심의단계에서 4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새만금수목원은 설계용역비로 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김제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김제육교재가설 국비 70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8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재가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심의단계에서는 KTX 김제역 신설 타당성 및 용지 현업축사 매입 실태조사비로 각각 1억원을 확보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비 2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규모확대 등 내실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새만금고속도로, 동서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예산이 작년대비 25%가 증액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특히 새만금 명품개발의 필수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의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중 농어촌보건의료기술

지원(6억), 김제농악 전통체험관(12억), 하기전용구장(14억)과 금산·금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억), 소하천·지방하천 정비(37억) 사업에서 국비 확보에 성공했으며, 공모사업에서는 새마을마을사업(14억), 농산물산지유통시설(10억), 조사료 가공시설지원(9억) 등 총 26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이 같은 성과는 전복도와 도내 정치권의 열정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아쉽게도 금번에 예산확보에 실패한 종자가공처리센터와 새만금전망타워 등의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심기일전하여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의적인 신규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귀농귀촌 2000세대 돌파 예고

1년 사이 200세대 늘어

올해 완주군의 귀농귀촌이 1814세대를 기록, 1년 사이 200세대가 늘었다. 지난 8일 완주군은 전라북도 귀농귀촌 실태조사 지침을 토대로 실시한 2017년 귀농귀촌 통계 조사 결과 올해 귀농귀촌은 1814세대, 321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14세대, 2769명보다 12.4%인 200세대가 증가한 수치다.

완주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증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1세대, 2012년 151세대, 2013년 530세대 2014년 898세대, 2015년 1,269세대, 2016년 1,614세대, 올해 1814세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귀농귀촌 2000세대 돌파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군은 귀농귀촌 증가 원인을 귀농귀촌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로컬푸드로 대표되는 선도적인 농업정책, 더 붙여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40대 이하 귀농귀촌인이 전년도 700세대에서 815세대로 대폭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완주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 교통복지, 교육분야에



올해 완주군의 귀농귀촌이 1814세대를 기록, 1년 사이 200세대가 늘었다.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젊은 도시민들의 욕구와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0㎡ 이상 규모의 전업농에 대해 주택매입·신축·수리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농지매입·임차비 지원,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교육훈련비, 이사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완주에 머물면서 지역탐색의 기회와 교육을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 귀농인의 집 15개소를 운영해 지역인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귀농귀촌세대가

꾸준히 늘면서 완주군은 이제 확실한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소셜굿즈 플랫폼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도농복합도시의 전형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귀농은 농업에 종사(농지원부, 경영체 등록)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세대를 뜻하고,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주한 세대를 말한다. 직업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조사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뤄졌으며, 전입신고서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체육인의 밤 개최

체육부문 성과 자축·감사패·공로패 수여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지난 7일 새만금컨벤션에서 내외빈과 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 여성체육위원회를 포함한 체육인 약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2017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체육부문 성과를 자축하고, 김제시 체육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여 체육인을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제시체육회 조승곤 상임부회장은 "김제시민의 건강과 김제시 체육발전을 위해 2017년 한해동안 수고한 모든 체육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감사패(김제시체육 발전 및 활성화 공로자) : ▲이원(고문), ▲오형진 (부회장), ▲이정용(이사), ▲정병현 (이사), ▲정은향(이사), ▲원성복(이사), ▲이동준(김제시민기자단), ▲유도연 (전북지체김제시지회), ▲정은숙(여성체육위원회), ▲이은주(여성체육위원회), ▲최수범(김제시바둑협회), ▲정경숙(김산동애어로빅스)

◇공로패(체육경기 및 경연대회 우수성적공로자) : ▲정복래(김제시게이트볼협회), ▲류재규(김제시사우더회), ▲박정민(김제시족구협회), ▲송준경(김제시테니스협회), ▲오광재(김제시배구협회), ▲문정주(김제시승마협회), ▲한용복 (김제시공도협회)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농민의 권리·가치 개천안 반영돼야"

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 '농민의 권리와 가치 개천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열린 군의회 정례회에서 "늘어만 가는 농업분야 피해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인구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촌 공동화 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제가 반드시 개천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개천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은 생산비와 농기계 값은 치솟는 반면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값은 수시로 폭락해 가족농, 중수농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다"며 "식량자급률은 20%선으로 추락해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은 농산물 생산과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식량안

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홍수조절과 수자원보존,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첨단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정책을 실현해 왔다"며 "개정 헌법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개정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음급차지 오일 지역중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